

徐廷柱 詩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관

李 惠 仙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I. 서 론

II. 윤회설과 영생주의

III. 「新羅抄」의 윤회사상과 영생주의

IV. 결 론

<논문 요약>

未堂 서정주 시인은 1936년 동아일보에 시 <壁>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펴 낸 15권의 시집에서 각기 다른 심오한 시세계를 펼치고 있다.

미당의 제4시집 「新羅抄」(1960)는 한국의 전통 속에서 신라인들의 정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肉化시킨 끝에 다다른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미당은 이승의 생명이 다하여도 사위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불교적 윤회전생을 통해, 또는 그들과의 靈通을 통해 영원히 사는 영생주의에 도달해 있다.

윤회(輪廻)는 연기설의 원인과 결과에 의한 순환, 유전(流轉), 생사(生死), 흐름, 상속, 지속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로 연기되는 현상들의 연속적 흐름을 윤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地獄道, 餓鬼道, 畜生道, 阿修羅, 人道, 天道 등 여섯 가지 세상에, 각기 현생에서 지은 善業과 惡業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되어 그 몸은 죽으면 흰 옷처럼 벗어버릴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끝없이 다시 태어나 윤회전생한다는 것이다.

시집 「신라초」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 속에서 미당이 육화시킨 신라인들의 윤회사상과 영생주의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은 시집 「신라초」에서 그치지 않고 제 15시집 「80소년 떠돌이의 시」에 이르도록 미당의 시세계를 관류하는 기본 사상이 되고 있다. 물론 시집 「신라초」가 창작되기 이전의 「화사집」이나 「冬天」에서도 이러한 세계관이 곳곳에서 산견되고 있다.

시 ‘善德女王的 말씀’에서는 죽어서도 자비의 실천, 즉 入塵垂手(시정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다)의 경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윤회사상에 입각한 인간긍정과 인간존중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꽃밭의 獨白’에는 꽃을 통해 영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시적화자의, 어떤 고난이 와도 修行으로 영생에 들려는 상승의지와 간절한 열망이

표출되어 있다.

또한 ‘娑蘇 두번째의 편지 斷片’ ‘구름다리’ ‘無題’ ‘숙영이의 나비’ ‘두 잣나무 사이’ 등에서도, 천년을 수유로 느끼는 미당의 시간의식과 공간의식 속에 나타나는 영원주의와 연기적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因緣說話調’에서는 한 송이의 모란꽃과 예쁜 처녀가, 흙과 물과 구름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윤회전생과 더불어, 불교의 기본 세계관인 自他一如사상까지 낱게 되어 우주 만유와 同一視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미당은 인간의 원죄의식의 업고와 고통을 신라정신과 불교정신에 귀의하여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神話를 창조하고 있다. 미당은 우주와 역사와 영원의 세계에 대해 거대한 스케일로 사색하고 포용한 시인이며, 고전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역사적 전통을 오늘에 재현시켜 윤회설에 입각한 영생주의의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 시인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서 他者를 보고 他者 속에서 자신을 보는 우주만유와의 교감을 통한 自他一如사상을 획득하고 있다.

주제어: 윤회사상, 영생주의, 新羅抄, 自他一如, 삼국유사.

I. 서론

미당 서정주시인은 2000년 12월 24일 저녁 그의 시 ‘내리는 눈발 속에 서’처럼 내리는 흰 눈발 속에 환한 미소로 이승을 하직한 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생전에 가장 아낀 제자로부터 친일시로 비판 받은 후 최근까지 친일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비록 미당시인이 한 때의 상황으로 인해 일부 친일시를 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미당은 여전히 우리나라 현대시의 정점이며 대표적 불교시인임에 변함이 없다.

열 다섯 권의 시집과, 산문집, 자서전, 세계 기행문 속에 많은 불교적 세계관을 펼쳐놓고 있는 미당은 우리민족의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갈고 닦아 한민족의 정신을 최고의 격조로 올려놓은 그 공적만으로도 한국문학사와 세계문학사에 우뚝 솟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인이다.

‘나는 마음속으로만은 내 나름대로의 정신의永生이라는 것도 생각할 줄도 알고 사는 사람’¹⁾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미당은, ‘시의 정부’ ‘모국어의 미술사’ ‘시인부락의 족장’ ‘모국의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극점’등 그에 대한 갖가지 평가와 찬사를 받는 미당은, ‘나는 마음속으로만은 내 나름대로의 정신의永生이라는 것도 생각할 줄도 알고 사는 사람’²⁾이라고 스스로 밝혀놓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의 도처에 불교적 세계관이 산견된다.

미당은 1936년 동아일보에 시 <壁>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펴낸 15권의 시집에서 각기 다른 심오한 시세계를 펼치고 있다.

첫시집 「花蛇集」(1941)에서 미당은 19세기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샤를르 보들레르의 영향과 니이체와 그리이스 신화의 영향으로³⁾ 인간의

1) 서정주, <미당시전집> 민음사, 1983년판 自序.

2) 서정주, <미당시전집> 민음사, 1983년판 自序.

3) 서정주 문학전집 3권 一志社 ‘天地有情’ 참고.

原罪意識과 육체의 혼돈과 방황과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원시적 생명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또 亡國의 恨과 절망을 안은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막연한 불안과 出口 없는 '벽' 속에서의 단절감과 격리감 안에서 <문둥이>같은 몸부림으로 '꽃처럼 붉은 울음'을 울고 있다.

해방 전후에 쓰여진 두 번째 시집 「歸蜀途」(1946)는 이러한 혼돈과 절망, 전율과 방황의 운명적인 인간 업고와 원죄의 형벌 아래서 벗어난 재기와 재생의 노래이다. 시 <귀촉도>를 통해 한국적 恨의 정서를 노래하는 한편으로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나 <밀어> <문 열어라 鄭道승아>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등의 시를 통해, 그 자신 속에 內在해 있는 '붉은 꽃' '푸른 꽃'의 생명력으로 다시 再生하여 동양정신과 불교정신 속에서 신생을 얻어 여유와 달관과 영생을 얻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제3시집 「徐廷柱 詩選」(1955)은 8. 15 해방과 6. 25라는 민족사의 환희와 시련과 절곡을 겪으면서 간행되었다. 여기에서 이미 동양의 고전에 대한 탐구정신과 불교사상에 깊이 침잠한 시편들이 나타나거니와 「화사집」에서의 대지적, 동물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수평지향에서 대지로부터 일어서서 하늘로의 솟구침이라는 수직 지향적인 변모, 즉 육체적, 운명적, 구속적, 본능적 삶의 방식에서 정신적, 자유적, 이성적 삶의 양식으로의 전환을 얻게 되는 것이다.⁴⁾

제4시집 「新羅抄」(1960)는 한국의 전통 속에서 신라인들의 정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肉化시킨 끝에 다다른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미당은 이승의 생명이 다하여도 사위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불교적 윤회전생을 통해, 또는 그들과의 靈通을 통해 영원히 사는 영생주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제5시집 「冬天」에서는 고요히 가라앉은 동양정신의 정수를 노래하고 「질마재 神話」에서는 그의 고향 질마재의 평범한 서민들을 설화와 신화

4) 김재홍, 미당 서정주, '서정주' 서강대 출판부, 1995 참고.

속의 주인공으로 확장, 재생시켰으며 독특한 이야기체 산문시를 개척해 내었다. 또한 「떠돌이의 詩」 「西으로 가는 달처럼」에 이어서 1997년 15 번째 시집 「80소년 떠돌이의 시」에 이르기까지 1000여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미당은 한 문학청년으로, 현역시인으로 남기를 원했다.

II. 윤회설과 영생주의

연기는 因緣하여 일어나는 것, 즉 어떤 원인(因)이 있고, 그것에 다른 조건이 연(緣)하여 새로운 하나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른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존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성 속에, 즉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相依相關性이 있다는 것이다. 인과 연의 화합에 의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시 그를 발생시킨 원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결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인이 되고 연이 되어 다른 존재에 관계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잡아함 권 1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끝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인다라의 구슬 그물 속의 구슬들처럼 서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하여 두루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윤회(輪廻)는 연기설의 원인과 결과에 의한 순환, 유전(流轉), 생사(生死), 흐름, 상속, 지속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로 연기되는 현상들의 연속적 흐름을 윤회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이 죽으면 각기 그 業에 따라 과보를 받는데, 善業을 지으면 善果를 받고 惡業을 지으면 惡果를 받아 각기 그 과보대로 알맞은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윤회설이란 생명이 있는 것은 여섯 가지의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번갈아 죽어간다는 사상으로 이를 六道輪廻라 한다.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地獄道, 餓鬼道, 畜生道, 阿修羅, 人道, 天道 등 여섯 가지 세상에 각기 현생에서 지은 善業과 惡業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되어 그 몸은 죽으면 현 옷처럼 벗어버릴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끝없이 다시 태어나 윤회전생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궁극적으로는 무명에서 벗어나 정각에 이르고 열반 적멸에 이르러 나고 죽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시키는 방편으로서 윤회설은 가장 설득력이 강한 사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도 윤회에 대한 기록은 풍부하게 보인다.

<삼국유사>의 蛇福不言이나,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석굴암)을 지은 金大成의 이야기, 죽어서 용이 되어 호국하겠다는 의지로 水中陵을 만들게 한 문무왕, 죽어서 三十三天의 신이 되어 신라를 돌보았다는 김유신의 이야기 등은 모두 윤회에 대한 기록으로 영혼(識)의 불멸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에는 전생과 내생이 현세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윤회설과 영생주의가 토착화되어 민중의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호국사상에까지 결부되어 있었다.

미당은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1951년 여름 6. 25 동란 중의 全州에서 ‘테라볼’이라는 학질약을 과용하여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사물과 사람에 대해 새로운 긍정적인 開眼을 하고 모든 것을 간절하게 받아들이면서 論語와 中庸, 三國遺事와 三國史記 등의 고전을 愛讀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야 어이없는 자살 미수자의 그 미수 직후의 한동안은 또 별다른 맛인 것이

다. 내장이야 상했건 어쨌건 햇별의 그리운 懇切度가 한결 더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 나는 상당히 엉망이 되었을 내 내장이 나아가는 동안의 이 높아진 간절도 속에서 孔子의 「論語」와 「中庸」, 그리고 또 우리 「三國遺事」와 「三國史記」 같은 책의 내용을 한 길 더 깊이 愛讀하게 되고, 다니는 길가의 풀포기, 그 곁의 어린애들의 눈을 좀더 유심히 바라다보게 되었다.⁵⁾

대자연과 우주적 질서에 대해, 또 인간에 대해 밝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현실불국토를 노래한 <上里果園>이 이때의 이 ‘햇별의 간절도’ 속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지은이 스스로 말하고 있거니와, 미당은 앞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애독하면서 제4시집 「신라초」의 기초가 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나는 「三國遺事」와 「三國史記」 속의 이야기들하고도 눈이 잘 맞아, 그것들을 漢文再修 겸해서 예쁜 카야드들에 한 이야기씩 한 이야기씩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 가는 글씨로 옮겨 베끼고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절엔 붉은빛 貫珠를 쳐 갔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여 내가 만들어 지니고 다닌 이 카야드 다발이 뒤에 내가 하게 된 그 新羅抄의 기초가 된 것이다.⁶⁾

이처럼 미당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애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온전히 자신을 담그어 거기 나타나 있는 신라인들의 생활, 사상, 감정을 肉化시켜 자기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집 「신라초」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 속에서 미당이 육화시킨 신라인들의 윤회사상과 영생주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은 시집 「신라초」에서 그치지 않고 제 15시집 「80소년 떠돌이의 시」에 이르도록 미당의 시세계를 관류하는 기본 사상이 되고 있다. 물론 시집 「신라초」가 창작되기 이전의 「화사집」이나 「동천」에서도 이러한 세계관이 곳곳에서 산견되고 있다.

5) 서정주 문학전집 3권 p322

6) 서정주, 앞의 책 3권 p323

본고에서는 미당의 시에 표출된 불교적 세계관을 신라사상을 본격적으로 肉化시킨 후에 쓰여진 시집 「신라초」를 중심으로 천착해 보고자 한다.

III. 「新羅抄」의 윤회사상과 영생주의

미당의 영생주의는 불교적 윤회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가 구하는 세계는 현실을 아주 여의고 아무 근심 걱정, 번뇌가 없는 순 정신적인 세계인 열반이나 無色界가 아니고, 철저히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세계이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몸을 가진 인간의 '사랑'을 긍정하고 연민하는 세계이다.

흔히 불교의 근본정신을 諸行無常과 諸法無我에 두어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오히려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근본 이치를 전하고 자비행을 실천해 현실불국토를 이루는데 있다. 즉 중국 송나라 곽암(廓庵)선사의 尋牛圖의 1) 심우(尋牛, 소를 찾다), 2) 견적(見跡, 소발자국을 보다), 3) 견우(見牛, 소를 보다) 4) 득우(得牛, 소를 얻다), 5)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 6) 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오다), 7) 망우존인(忘牛存人, 소는 없고 나만 있다), 8) 인우구망(人牛俱忘, 나도 소도 모두 없다), 9) 반본환원(返本還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 오다), 10) 입전수수(入塵垂手, 시정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다)의 열 그림 가운데에서 아홉 번째와 열 번째를 위해서 앞 선 여덟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다.

미당시에 나타난 영생주의는 철저히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세계이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사랑'을 긍정하고 연민하는 세계로서 그 의식은 9) 반본환원과 10) 입전수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朕의 무덤은 푸른 嶺 위의 欲界 第二天.
피 에 있으니, 피 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 터잡는 데—그런 하늘 속.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나무들 인색치 말고
 있는 사람은 病弱者한테 柴糧도 더러 노느고
 홀어미 홀아비들도 더러 찾아 위로코,
 瞻星臺 위엔 瞻星臺 위엔 그중 실한 사내를 나라.
 ∴
 ∴
 내 못 떠난다.

- ‘善德女王의 말씀’ 부분 -

이 시의 화자인 선덕여왕이 죽어서 묻히고 싶어하는 곳은 忉利天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三界인 欲界, 色界, 無色界 중에서 첫 번째인 欲界의 제2천이다. 欲界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6욕천(사천왕천, 도리천, 아미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의 총칭으로 식욕, 수면욕, 음욕 등 근본적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이 가는 하늘이다. 六欲天은 六道로 보면 天道에 속하나 아직까지 욕심을 떠나지 못한 세계이므로 삼계로 나눌 때는 욕계에 넣게 된다. 이 하늘의 중생들이 음욕을 행할 때는 변하여 인간과 같이 되지만, 다만 風氣를 누설하기만 하면 熱惱가 없어진다고 한다.⁷⁾

이 시의 화자는 ‘피 예 있으니/피 예 있으니’라고 하여 현실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죽은 후에 가는 세계도 ‘구름 엉기고, 비 터잡는 데 - 그런 하늘속’인 욕망을 여의지 못한 欲界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곧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病弱者에게 柴糧도 노나 주어야 하고 ‘홀어미 홀아비도 더러 찾아 위로’해야 하고 ‘살[肉體]의 일로서 미친 사내에게’ 황금 팔찌로 위로해야 하고 서라벌 천 년의 지혜가 가꾼 국법보다 더 ‘늘 항상’ 타고 있는 사랑을 하늘 끝까지 닿는 노래로 다스려야 하니 ‘내 못 떠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

7) 불교사전 운허용하지음 동국 역경원 1961. p170참고

적 화자가 못 떠난다는 것은 현실을 염려하고 잊지 못하는 애착심의 표현이지만, 그도 결국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지라 떠나기는 떠나되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은 인간의 일을 아주 잊을 수 없는 - 결국은 욕망을 가진 중생의 세계인 ‘육계 제2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잊지 못할 인간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푸른嶺 위’의 하늘이 표상하는 영원의 세계에 도달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죽어서도 자비의 실천, 즉 입전수수의 경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善政을 베풀고 사랑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랑이상주의자, ‘戀人들의戀人’이었으며 병약자, 홀어미 홀아버의 가까운 벗이었던 선덕여왕의 인간긍정과 인간존중정신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흔히 미당을 가리켜 신라인의 정신세계나 靜的인 동양정신으로 도피하여 현실을 외면한 시인이라거나, 그의 시에 영원성은 있되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비난은 再考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미당은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거대한 스케일로 사색한 시인’⁸⁾이며 영원의 세계와 교감하던 신라인의 정신과 전통과 역사를 현실에 재현시키고 고전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현실의 바탕 위에서 영생주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의 힘을 불교의식을 통해 보여주는 시인이라 하겠다.

그래서 미당의 시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無所住) 자유자재함을 얻어 ‘千三百年’이 오히려 가까웁게 느껴지며 ‘선덕여왕같은 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善德女王讚歌)은 시인 자신은 물론이고 이 시를 읽는 독자 모두의 현재형의 ‘기쁨’인 것이다.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벗어버렸다.

8) 김재홍 위의 책, 위의 글 p101

활로 잡은 山돼지, 매(鷹)로 잡은 山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開關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門에 기대섰을 뿐이다.
 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
 벼락과 海溢만이 길일지라도
 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

- ‘꽃밭의 獨白’ 전문 -

이 시는 ‘娑蘇斷章’이란 부제가 붙은 시로서 사소는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이다. 이 글은 사소가 산으로 神仙修行을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이라는 필자注가 있다. 이 시의 시적 화자인 사소는 처녀가 잉태하면 사회나 가정에서 쫓아내는 추방형을 받는 신라의 국법 아래, 그것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꽃을 통한 영생의 길을 찾아 나선다. 이 시에서 꽃은 시적 화자를 영생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며 ‘지상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통로이자 영원 그 자체’⁹⁾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라는 절규 속에는 벼락과 해일, 그보다 더한 고난이 와도 修行으로 영생에 들려는 시적 화자의 상생의지와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다. 위의 시에서 ‘노래’는 그 중 낮지만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온다고 하였다. 단순한 노래로서의 시 즉 예술은 그 중 낮기는 해도 구름까지 갔다가 영생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상으로 되돌아오고 말지만, 시적화자가 ‘아침마다 開關하는’ 그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꽃 -不生不滅하고 不增不減하는 지혜(반야)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추구하는 영생은 피가 잉양거리던 몸과 마음의 병을 다 낫게 하고 ‘비취의 별빛 불들을 켜고’ ‘生金の 鑛脈’을 하늘에 퍼게 되는 것이다.

9) 김재홍, 앞의 책, 앞의 글 p114

피가 잉잉거리던 病은 이제는 다 낳았습니다.

올 봄에
매[鷹]는,
진갈매의 香水의 강물과 같은
한섬지기 남직한 이내[嵐]의 발을 찾아내서

대여섯 달 가꾸어 지낸 오늘엔,
홍싸리의 수풀마냥. 피는 서격이다가
翡翠의 별빛 불들을 켜고,
요즈막엔 다시 生金の 鑿脈을 하늘에 펴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로도,
내 어린 것 弗居內에게로도, 숨은 弗居內의 애비에게로도,
또 먼 먼 즈른해 뒤에 올 젊은 女人들에게로도,
生金 鑿脈을 하늘에 펴니다.

- ‘娑蘇 두번째의 편지 斷片’ 전문 -

더욱이 그 생금의 광맥은 시적 자아 자신을 實存케 해 준 ‘아버지에게로도’ 그의 아들 ‘弗居內’에게로도, 또한 그로 하여금 사랑에 눈뜨게 하여 영생의 상승의지를 갖게 해 준 ‘숨은 弗居內의 애비’에게로도, 무엇보다 ‘먼 먼 즈른해 뒤에 올 젊은 女人들’에게로도 그들의 하늘 위에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되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이처럼 영생의 경지에 들게 되기까지는 ‘한 섬지기 남직한 이내[嵐]의 발을 찾아내서’ 대여섯 달 가꾸어 지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修行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잉잉거리’는 피, ‘서격이’는 피가 ‘翡翠의 별빛 불들을’ 켜고 영원의 하늘에 생금의 광맥을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미당의 첫 시집 <화사집>에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부림, 관능과 성을 상징하는 끓는 피의 달뜬 호흡 등도 ‘한 섬지기 남

짓한 이내의 발'을 찾아내기 위한 젊은 날의 과정이며 통과 의례로서 <귀족도>와 <서정주 시선>을 거쳐 <신라초>에 이르러 꽃의 문을 열고 영생에 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당은 이 시의 해설에서 스스로 영생주의에 대해 밝혀놓고 있다. 사랑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 제약과 구속이 많은 인간사회를 떠나 산으로 간 사소는 적지 않은 몸부림과 '홍씨리의 수풀마냥' 서걱이는 피를 잠재우고 마침내 좌정하면서, 두 사람 이상이 땅 위에 살아 자손을 이어가려면 이 사이를 연결하는 한 理路의 광맥을 가져야 함을 자각한다. 그런데 '이 이로는, 인간 사회에서 단절된 이 새로운 삶의 체험자에 의해 체득된 것은 현 인간사회 표준만이 아니라 영원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汎自然으로 하는 것이다'¹⁰⁾

그래서 이 시의 시적 화자가 펼치는 영생주의의 '생금의 광맥'은 '먼 먼 즈른해 뒤에 올 젊은 女人들에게'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理路의 광맥인 '이넷길'은 이승과 저승을 내왕하게 하고 현실과 영원을 내왕하게 하는 통로로서 시적 화자가 자아 속에서 발견하는 반야의 힘이다. 이러한 '이넷길'의 이미지는 시 <구름다리>에도 나타나 있다. '어느날 언덕길을 喪輿로 나가신 이가/그래도 안 잊히어 마을로 돌아다니며' 구름으로 이루어진 別邸에 들르게 되는 길이 바로 '맑은 山 위의 이내[嵐]길'을 통한 영생의 길이다.

시 <無題>에서 시적 화자는 '자네 속 몰라' 애타다가는 녹아서 사해 중생을 일깨우는 종이 되는데, 종이 되어도 그냥 종이 아니라 '일천년 자네 집 문지방에' 울음 우는 영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순환, 반복, 변신하는 영생의 삶은 <숙영이의 나비>의 나비와 <두 쉼나무 사이>의 '시퍼렇디 시퍼런 한마지기 이내!'에서도 나타나거니와 '천년'을 수수료 느끼는 미당의 시간의식, 공간의식은 일찍이 우리 문학사에서

10) 서정주, 앞의 책, 앞의 글 p193

드물게 보는 영원주의이며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시의식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뺨 비비듯 결국은 그게 그거다
하늬바람 마파람 소소리바람
바람의 떼 못 떠나고 보채쌓는 건
뺨 비비듯 결국은 그게 그거다

山아 푸른 山아 나보다는 덜 닳아진,
나보다는 젊고 키가 큰 山아

내가 살다 마침내 네 속에 들어가면
바람은 우릴 안고 돌고 돌아서,
우리는 드디어 차돌이라도 되겠다.
눈에도 잘 안 뜨일 나를 무늬해
山아 넌 마침내 차돌이라도 돼야 하렸다.

그러면 차돌은 또 아양같이 자리해서
자잘한 細砂, 細砂, 細砂라도 돼야 하렸다.
그 細砂의 細砂는 또 빨건 흙이라도 돼야 하렸다.

그렇거든 山아
그 때 우린 또 같이 누워
출렁이는 별판의 풀을 기르는
제일 오래고도 늙은 곳이 되리니

- ‘無題’ 부분 -

인간뿐만 아니라 무정물까지도 미당에게 오면 열린 혼으로 교감하는 우주적 인식을 보여준다. 하늬바람 마파람 소소리바람, 언제나 젊어 있는 산, 그리고 시적 자아, 즉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개체이면서 전 우주와 연계되어 있어 主體와 他者의 구별 없이 순환 변용하며 공생하는 것이다. 그냥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 세계를 영

원히 지속시키는 새로운 생명인 ‘벌판의 풀’을 기르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 윤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못 떠나고 보채쌓는’ 바람의 때는, 죽어서도 완전한 열반에 들어 무색계로 가지 못하고 육계 제 2천이나(善德女王的 말씀)의 선덕여왕) 도리천(춘향유문의 춘향)에서까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어 ‘벌판의 풀’을 기르는 생명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시 <旅愁>에서도 ‘피어린 牧丹의 꽃밭’이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되고 ‘바다’가 되어 해, 달이 되고 별이 되는 변신과 순환을 통해 표출된 이러한 윤회사상은 <因緣說話調>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언제든가 나는 한 송이의 모란꽃으로 피어 있었다.
한 예쁜 처녀가 옆에서 나와 마주 보고 살았다.

그 뒤 어느날
모란꽃잎은 떨어져 누워
매말라서 재가 되었다가
곧 흙하고 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 이내 처녀도 죽어서
그 언저리의 흙 속에 묻혔다.
그것이 또 역수의 비가 와서
모란꽃이 사위어 된 흙 위의 재들을
강물로 쓸고 내려가던 때,
땅 속에 피어 있던 처녀의 피도 따라서
강으로 흘렀다.

그래 그 모란꽃 사원 재가 강물에서
어느 물고기의 배로 들어가
그 血肉에 자리했을 때,
처녀의 피가 흘러가서 된 물살은
그 고기 가까이서 출렁이게 되고,
그 고기를, - 그 좋아서 뛰던 고기를
어느 하늘가의 물새가 와 채어 먹은 뒤엔
처녀도 이내 햇별을 따라 하늘로 날아올라서

그 새의 날개 곁을 스쳐다니는 구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새는 그 뒤 또 어느날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서,
 구름이 아무리 하늘에 머물게 할래야
 머물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에
 어쩔 수 없이 구름은 또 소나기 마음을 내 소나기로 쏟아져서
 그 죽은 새 사 간 집 뜰에 퍼부었다.
 그랬더니 그 집 두 양주가 그 새고깃 저녁상에서 먹어 消化하고
 이어 한 嬰兒를 낳아 養育하고 있기에,
 뜰에 내린 소나기도
 거기 묻힌 모란씨를 불리어 움트게 하고
 그 꽃대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 이 마당에
 現生의 모란꽃이 제일 좋게 핀 날,
 처녀와 모란꽃은 또 한 번 마주 보고 있다만,
 허나 벌써 처녀는 모란꽃 속에 있고
 前날의 모란꽃이 내가 되어 보고 있는 것이다.

- ‘因緣說話調’ 전문 -

한 송이의 모란꽃과 예쁜 처녀가, 흙과 물과 구름과, 윤회전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모란꽃과 처녀로 마주보고 서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때에는 처음의 모란꽃은 처녀가 되고 처음의 처녀는 모란꽃으로 마주보고 있어 윤회사상 뿐만 아니라 自他一如思想까지 형상화하고 있다. 중생의 앞에 나타나는 부처나, 부처의 교화를 받는 중생이나, 내, 남 없이 모두가 하나이며 남이 아나니 우리는 이 시에서 他人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 자신 속에서 타인을 볼 수 있는 自他不二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시 <국화 옆에서> 에도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여름날 천둥 속에 비가 내리고, 가을밤 무서리가 내리고, 시인

인 내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 자연과 인간과 개체와 우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체로 보는 不二사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 성 속의 존재로 보는 연 기설을 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無題>나 <旅愁>, 그의 잘 알려진 <내가 둘이 되면> 등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삼라만상과 교감하는 우주적 인식은 윤회설과 더불어 불교의 기본 세계관인 自他一如사상까지 낱게 되어 우주만유와의 同一視를 획득하게 된다.

IV. 결 론

미당에게 있어서 시를 쓴다는 행위는 제한적인 인간조건 속에 투사된 인간이란 有限한 존재인 자기를 인식하면서 ‘벽’속의 ‘병어리’같은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는 자기탐구와, 영원한 생명을 희원하는 영생주의의 언어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미당 자신이 ‘시란 한 시인의 자기형성 과정에서 무시로 탈피해 던지는 낡은 허물과 같은 것’¹¹⁾이며 ‘시인의 자격이란 그것이 모든 人間情緒의 제일의 친우인 점’에 있다고 하였다. 미당은 85세에 영면하기까지 가장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사람’으로서 심장이 말라붙는 병을 앓으며 자신의 심장을 짜내어 타인의 심장을 감동시키는 시를 써 온 시인이다. 한 시인이 일생을 통해 어느 한 분야의 시세계에서만이라도 성공한 시를 보여주면 우리는 그를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하거니와, 미당처럼 만년에 이르기까지 간행한 15권의 시집마다 괄목할 만한 심오하고 다양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시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시인은 詩文學史를 통해 그 예를 찾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미당의 초기시부터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인의 노력

11) 서정주, 앞의 책, 앞의 글 p180

이 그의 시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표출되어 있는가를 개관하고, 미당이 지녀왔던 불교적 세계관을 시집 「신라초」를 중심으로 천착해 보았다.¹²⁾

미당은 인간의 원죄의식의 업고와 고통을 신라정신과 불교정신에 귀의 하여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神話를 창조하고 있다. 미당은 우주와 역사와 영원의 세계에 대해 거대한 스케일로 사색하고 포용한 시인이며 고전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신라의정신과 역사적 전통을 오늘에 재현시켜 현실의 바탕 위에서 윤희설에 입각한 영생주의의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 시인이다. 뿐만 아니라 미당은 자신 속에서 他者를 보고 他者 속에서 자신을 보는 우주만유와의 교감을 통해 自他一如사상을 획득하고 있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이야말로 타인을 배려하고 지닌 것을 나누며 인간을 비롯하여 생명 가진 모든 중생, 나아가 무정물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고 자기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인간중심주의적, 합리주의적인 서구의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도구주의적 자연관을 벗어나서 탈인간중심주의 속에 자아와 세계의 절대적 평등과 상생을 지향하는 범자연주의적 불교적 세계관은, 기후의 이상변화와 환경변화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지구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태주의적 측면에서나 지구의 위기 극복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2) 서정주, <徐廷柱>한국문학총서 2권, 한국문학연구소, 1980. p173. 미당은 ‘내 시와 정신에 영향을 주신 이들’에서 니이체와 석가모니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참고 문헌>

- 『미당시전집』, 『徐廷柱 詩選』
서정주, 「서정주 문학전집」 3권, 一志社, 1972.
서정주, 「떠돌이의 시」 민음사, 1976.
서정주, 「徐廷柱」 한국문학총서 2권, 한국문학연구소, 1980.
서정주, 「미당시전집」 민음사, 1983.
한국문학연구소 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강우식, 「서정주시의 상징연구」 「한국문학」 1984,7.
김용직 「현대시원론」 학연사, 1988.
김재홍, 「미당 서정주」 「서정주」 서강대 출판부, 1995.
김학동, 「신라의 영원주의- 신라초」를 중심으로」 어문학 24호, 1971.
김화영, 「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송하선, 「미당 서정주연구」 선일문화사, 1991.
운허용하지음 불교사전, 동국 역경원, 1961.
이재복 편저 「불교교리 및 상식 해설」 동국문화사, 1992.
조연현 편 서정주 연구 동화출판사, 1975.

Abstract

Buddhistic view of the world shown in the poetry of Seo, Jeong-ju / Lee, Hye-seon

Mi-dang Seo, Jeong-ju spreads profound world of poetry respectively on his fifteen poetical collections since his debut with a Dong-a Newspaper prized poem <Wall> in 1936.

His 4th collection 「Shilla-cho」(1960) is a splendid outcome reached by discovering the spirit of Shilla people from the heart of Korean traditions and internalizing it. The poet arrived at eternalism through perpetual love that does not disappear in spite of the death of present life and Yun-hoe-jeon-saeng (Buddhistic transmigration), or through spiritual intercourse with them.

Yun-hoe implies circulation, vicissitude, life and death, stream, succession, and continuation induced by Yeon-gi-seol (Buddhistic cause and effect theory). In other words, continuous flows of phenomena generated by cause and effect can be called Yun-hoe.

All living beings are reincarnated respectively in six worlds (Yuk-do) in accordance with good and evil conducts in present life. Although the body can be abandoned like worn clothes, the soul does Yun-hoe-jeon-saeng endlessly.

Buddhistic world view such as Shilla people's Yun-hoe ideology and eternalism internalized by Mi-dang can be found from the numerous works on the collection 「Shilla-cho」.

In poem 'Queen Seon-deok's words', fundamental doctrine of Buddhism of endeavoring to realize a practice of charity, namely, a state of Ip-jeon-su-su (enlighten the mankind within administration) regardless of the death and human-positive and human-respect beliefs based on the Yun-hoe ideology are well exposed.

In 'Monologue of a flower garden', a will of ascension and cordial desire

towards an immortality through an asceticism in spite of any hardships of the poetic narrator going out for one's way to an eternal life through the flower is expressed.

Moreover, in works including 'Sa-so a piece of second letter', 'An overpass', 'No title', 'A butterfly of Suk-yeong', and 'Between two aromatic trees', eternalism and world view of Yeon-gi expressed in Mi-dang's time and space consciousness feeling a thousand year as a moment can be read.

'In-yeon-seol-hwa-jo' yields fundamental world view of Buddhism of Ja-ta-il-yeo (self and others are not different) as well as Yun-hoe-jeon-saeng of a peony blossom and a pretty lady being born again to new lifes through earth, water and clouds, and achieves identification with all things in the universe.

In this way, Mi-dang creates a new mythology advanced by overcoming the evil deed and agony of human's original sin by devoting to Shilla and Buddhism spirits. Mi-dang is a poet who contemplated and tolerated the universe, history and origins of the universe and world of eternity with gigantic scale, and who tried to make his way to an open world of immortality based on the Yun-hoe ideology by reincarnating historical traditions at the present through modernistic modification of the classics. Furthermore, he acquires Ja-ta-il-yeo ideology through a sympathy with all things in the universe seeing others inside of oneself and oneself inside of others.

Key words: Transmigration, Immortality, Shilla-cho, Sam-guk-yu-sa, Ja-ta-il-yeo(self and others are not different).